

사티아난드 뉴질랜드 총독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아난드 사티아난드 총독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각하와 뉴질랜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이 가장 가 보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가청렴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의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러한 뉴질랜드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높은 신망 속에 뉴질랜드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뉴질랜드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친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6천 명의 용사를 보내 주었고, 경제발전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성의를 다해 도와주었습

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클라크 총리는 양국관계를 '21세기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실질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양국이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력약정에 따라 추진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도 기대가 큼니다.

문화교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린 데 이어서, 최근에는 여러 편의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가 뉴질랜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영화를 함께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에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의 건강, 그리고 총독 각하 내외분의 건승과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